

김학송 선교사 “통일은 하나님의 꿈, 우리가 붙들 약속의 기도”

하와이 코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2회 글로벌 복음통일 전문 선교대회 둘째 날, 김학송 선교사는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것을 강조했다.

김학송 선교사는 2017년 5월, 평양과기대에서 사역하다가 '북한에 적대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북한 보안기관에 체포됐다가 1년 동안 고초를 겪고 풀려났다. 김학송 선교사는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송환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직접 마중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학송 선교사는 1990년대 중반 도미해 LA 윌드미션대학교를 졸업한 후, 동양선교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하다 2005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북한 주민들이 처한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이후 2014년 동양선교교회 중국 선교사로 파송돼 활동했으며,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실험농장을 통해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연구를 했었다.

그런 가운데 북한 보위부는 어느 날 갑자기 “공화국 최고존엄을 모독했다. 공화국 제도를 비하중상했다.



제2회 글로벌 복음통일 전문 선교대회에서 강연하는 김학송 선교사 ©기독교일보

공화국 전복을 노린 각종 종교활동에 적극 참가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죄목을 달아 김 선교사를 체포했다. 그렇게 기약도 없는 수감 생활이 계속됐다. 보위부 간부는 김 선교사에게 “살아서 나갈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다.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던 작은 방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고, 유난히도 차가운 바닥은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마다 보여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날 김 선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에 앉아 국회로 들어가는 꿈을 꾸게 됐다. 그는 줄지어 늘

어서 백인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하던 꿈을 꾸면서 석방을 확신했다. 그러나 석방의 꿈은 단시간에 이뤄지지 않았다. 꿈을 잊어버릴 즈음 2018년 5월 9일 석방의 날은 갑자기 찾아왔다. 그리고 꿈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성취를 직접 체험한 순간이었다.

김학송 선교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원리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원과 방법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더디게 느껴질 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꿈은 반드시 이뤄진다는 것을 북한 감옥에 억류되어 있을 때 확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선교사는 “이제는 우리가 내 개인의 욕망을 따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꿈을 붙들고, 우리 민족의 하나됨과 북한의 모든 동포들이 북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전했다.

미국 청소년 10명 중 1명만 “정기적으로 성경 읽는다”

미국 성서공회(ABS)가 발표한 새 보고서에서 미국인 Z세대 청소년 중 10% 미만이 정기적으로 성경 읽기에 전념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10일 발표된 '2021년 미국 성서 현황 보고서'는 9세에서 24세 사이로 정의되는 Z세대가 “성경과 불안정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 결론지었다.

미국성서공회는 1월 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3,354명과 15-17세 미만 청소년 9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진은 15-17세는 “Z세대 청소년”, 18-24

세는 “Z세대 성인”으로 구분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Z세대 청소년 중 9%만이 성경 읽기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성경 몰입(Scripture Engaged)”에 속했고, Z세대 성인은 14%, 밀레니얼 세대는 23%가 “성경 몰입”에 해당했다.

반면, Z세대 청소년의 47%는 “성경과 무관(Bible Disengaged)”한 것으로 판명됐다.

보고서는 “오늘날 미국 성인의 절반은 1년에 최소 서너 번은 성경을 사용하는 성경 사용자의 자격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Z세대 청소년은 3명 중 1명(34%)만이 성경 사용자에 그쳤고, Z세대 성인 또한 43%로 미국 성인의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밀레니얼 세대는 성경 사용자 비율이 Z세대보다 높아 전국 평균(49%)에 근접했다.

성서공회는 2020년 코로나 대유행과 인종차별 반대 시기에, Z세대 청소년들이 성경 읽기가 줄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0년의 혼란은 십대들 사이에서 더 많은 성경 사용을 촉발시키지 못했다”며 “Z세대 청소년(27%)이 Z세대 성인(19%)이나

밀레니얼 세대(9%)보다 성경 사용을 줄였다고 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다.

반면 밀레니얼 세대는 최근 1년간 성경 사용이 증가했다고 답할 가능성이 높았으며(29%), Z세대 성인(27%)과 청소년(21%)보다 높았다. 추가적으로, 미국인 Z세대는 “평균보다 낮은 성경 참여” 외에도 “성경의 가치에 대해 상당히 적은 확신”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주요 이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 질문했을 때 Z세대(15-17

세)의 청소년은 그들 세대의 성인보다 동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았고, 노년층보다 훨씬 더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Z세대 청소년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의견을 계속 형성할 수는 있지만, 전체 Z세대는 여전히 밀레니얼 세대보다 자유(37% 대 27%) 및 화합(29% 대 20%)과 같은 문제와 성경과의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성서공회는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는 시기인 Z세대가 연구의 주된 초점이 되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 단체의 여러 설문조사에서 큰 영적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질,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rlo Ave. 뉴서울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월~금: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2021 K-가스펠 밴드 경연대회
미주복음방송 개국 30주년 기념
SINCE 1991 30th Anniversary GBC 미주복음방송
K-GOSPEL BAND CONTEST
총 상금 \$14,000
포스트 팬데믹, 가스펠 밴드로 함께 합니다.
온 세대가 찬양으로 위로와 회복이 되는 K-가스펠 밴드!
접수기간: 2021년 8월 1일(주일) ~ 9월 15일(수)
접수방법은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kgbc.com) 참조바랍니다.
예선: 2021년 9월 29일(수) 온라인 영상 심사
본선: 2021년 10월 27일(수) 무대공연 심사
참가부류: 보컬 밴드(3인 이상)
참가자격: 크리스천 누구나 나이, 성별 상관없이 참여 가능 (교회연합 밴드 우대함)
참가비용: 1인당 \$50
시상내역: 대상-상장, 음원/영상 제작지원 및 상금 (총\$5,000/1팀)
우수상-상장, 음원/영상 제작지원 및 상금 (총\$6,000/2팀)
특별상(작/편곡, 보컬, 연주부문)-상장 및 상금 (총\$3,000/3팀)
*본선 입상자 전원 GBC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 및 각종행사 공연 참여
주최/주관: GBC 미주복음방송 (am1190 in LA) | 특별후원: 미주 CGNTV / CTS America
협력기관: 충청선교교회 / KCMUSA / Lighthouse Studio / OneHeart / Overflow Ministry / 아멘넷 / 기독교뉴스(CBSN)
미주복음방송 www.kgbc.com / 714-484-1190 / 2641 West La Palma Ave., Anaheim, CA 92801

GBC 미주복음방송 주최 “K-가스펠 밴드 경연대회” 열린다



총 상금 1만 4천 달러, 각종 공연 기회 제공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온라인 접수

GBC 미주복음방송(AM1190)이 개국 30주년을 맞아 K-Gospel Band Contest (K-가스펠 밴드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미국 내 거주하는 3인 이상의 크리스천 밴드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교회 찬양팀이나 연합 찬양팀으로도 참가 가능하다. 대상은 비롯해 우수상, 특별상이 선정되며 총상금은 \$1만4천 달러다. 또한 대상과 우수상 3팀에게는 상금과 함께 뮤직비디오 및 음원 제작, 그리고 본선 입상자 전원에게는 GBC 방송 프로그램을 통

한 홍보와 더불어 각종 행사 및 공연 기회가 주어진다.

접수는 8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며, 예선은 9월 29일(수) 온라인으로 전문 심사위원과 유튜브를 통한 일반인 심사가 이뤄진다. 예선을 통과한 팀은 전문 사역자의 멘토링 워크숍을 거쳐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본선은 10월 27일(수) LA 총현 선교교회(담임 민중기 목사) 본당에서 현장 무대 공연으로 진행된다.

미주복음방송은 “오래 동안 지속되는 팬데믹으로 현장 예배가 중단되고, 찬양팀과 찬양밴드도 함께 위축되었던 기간을 마감해가는 시점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컬 밴드 찬양팀을 격려하며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장을 열어드리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kgbc.com 또는 전화 714-484-1190로 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저렴한 의료보험 대안 Medi-Share 한국어 서비스



종교 및 자선기관으로 일리노이주에 비영리 기관으로 등록된 THF 선교회는 영, 혼, 육의 전인적 치유사역을 통하여 개인을 세워가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THF는 True Healing and Fulfillment의 약자로, 영적으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며 (Spiritual Healing), 상한 심령(혼)의 치유와 자요케 함 (Inner Healing), 그리고 병든 육체의 치유를 (Somatic Healing) 위한 의료비 나눔 사역을 하고 있다.

육체의 질병을 치유함에 있어서 의료비 부담을 줄여 한인 크리스천들이 더 나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언어장벽의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THF 선교회는 크리스천 케어 미니스트리(Christian Care Ministry, CCM)과 동역하고 있는데, CCM은 1993년 Florida에 설립된 의료비 나눔 선교단체이다. CCM의 의료비 나눔 프로그램은 메디 셰어 (Medi-Share)이며, 회원들은 가입 시 크레딧 유니온(credit union)에 회비 계좌를 열어 회원간 직접적으로 의료비를 나눈다.

메디 셰어는 현재 40만 이상의 회원이 가입하고 있으며, 전국 90만 곳 이상의 의료기관이 연결된 PPO network를 가지고 있다. 이 PPO network를 통해 회원은 회원증 제출만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회원이 직접 self-pay discount를 요청해야 하거나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없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한 편리한 시스템 구축으로 회원들에

게 각종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메디셰어의 의료비 지원에는 연간 혹은 평생 지원한도액이 없으며, 회원들에게는 비전(vision), 치과(dental), 약국(pharmacy)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24/7 연중 무휴, 무료로 원격 진료와 원격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CCM에는 65세 이상 시니어 의료비 나눔 프로그램인 시니어 혜택(Senior Assist)이 있다. 시니어 혜택은 메디셰어 A & B 소지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Supplemental insurance인 Medigap plans의 역할을 한다. 시니어 혜택회비는 65세에서 70세는 \$70, 71세에서 75세는 \$85, 76세 이상은 \$95 이다. 그리고 65세가 되는 initial enrollment period 동안 가입하면 pre-existing conditions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된다.

관계자는 “메디 셰어가 여러 가지 편리함과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제까지는 한국어 서비스가 없어 한인 사회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제 THF 선교회와 메디 셰어가 동역을 하게 됨으로써, 높은 보험료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pecially 65세가 되어서 Medigap plans를 찾는 분들은 시니어 혜택(Senior Assist)으로 가입해서 일반 보험처럼 편리함과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메일: ckim@medishare.com
한국어 서비스 833-742-7349,
가입문의 213-434-1170

한미연합회(KAC) ‘모의유엔 (MUN)’ 온라인 프로그램 모집

2021-2022년도 청소년 학생 모집



한미연합회 (KAC) ‘모의유엔 (MUN)’ 청소년 온라인 프로그램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스 송)는 2021-2022년도 모의유엔(MUN)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중·고등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 됨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금년에도 KAC 모의유엔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로 열여섯 번째를 맞는 KAC MUN 프로그램은 참가 학생들의 연설, 글쓰기, 비판적 사고능력, 설득력 및 지도력을 키우는 교육을 진행하

고, 학생들이 직접 주관하는 모의유엔 대회와 지역사회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미연합회는 “학생들은 유엔 회원국 대표자 역할로 유엔 회의를 재현하여 국제 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지난해 참가 학생들은 2개의 최우수 컨퍼런스 대회에 참여해 수상을 하였으며, KAC 모의유엔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들 중에는 Princeton, Stanford, MIT, Co-

lumbia, Amherst, Boston University, Duke, Harvard, UC Berkeley, UCLA 등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했다.

프로그램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매주 2시간 30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며 참가대상은 8학년에서 11학년을 시작하는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다. 12학년은 이전 KAC MUN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정규 지원 마감일은 8월 22일(일) 11시59분 까지다. 신입학생 선발을 위한 인터뷰는 지원서 제출 순서대로 실시된다.

지원 방법은 온라인 지원서(https://bit.ly/3wAQQx4) 작성 또는 한미연합회 웹사이트(www.kacla.org/mun)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등록비는 150불 달러다.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혜택도 제공된다. 수업료는 매달 75달러다.

KAC 모의유엔 프로그램 문의: 전화 (213) 365-5999 또는 이메일 jeany@kacla.org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허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www.marhlaw.com

辯護
변호

實力
실력

精誠
정성

責任
책임

信賴
신뢰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사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때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 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 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입처럼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 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 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별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때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믿겨림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진본이 없는 것 같고 있습니다.

마동환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이민법

낮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분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은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분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와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여는 분야 보다는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임헌수 목사 “수년 내 갑자기 통일이 올 것...심판 머지 않아”

제2회 글로벌 복음통일 전문 선교대회가 하와이 코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회장인 임헌수 목사(토론토큰빛교회 원로)가 첫날 저녁집회를 통해 북한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불현듯 임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북한 동포들의 해방의 날을 위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도 수년 내 부흥하게 하소서’(하박국2:3)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임 목사는 북한의 지난 70년 간의 만행과 도발에 대해 “수 십 차례의 도발을 한번도 인정할 적이 없다”면서 “북한도 회개하지 않으면 일본이 망한 것처럼 한 순간에 망할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 심판의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

임 목사는 앞서 8.15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 민족의 해방과 관련, “해방은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일이었다. 우리 스스로 민족 해방을 위해 한 일이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고 말했다.

해방 전 우리 민족이 처했던 상황에 대해 “갑자기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지배를 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을 사용하던 자기 말을 빼앗겼

다. 일본 사람들의 글을 배워 써야 했고, 젊은 청년들은 강제로 징용에 끌려갔고 젊은 여성들은 위안부로 끌려갔다.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착취를 당했다”면서 “일본은 조선총독부를 세워 조선을 수탈했다. 나라의 각종 보물들을 빼앗는 것은 물론 전쟁물자 조달을 위해 가정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고 언어 등 각 영역에서 민족 말살정책을 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 목사는 “우리 나라의 단일감정은 우연이 아니다. 7-80년이 지나도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저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역사적으로 700번 이상 우리나라를 공격했다. 일본에 한이 맺힌 민족”이라면서 “탄압은 결국 신사참배 강요를 통해서 절정에 이르렀다. 태평양전기 말기에 가서 패색이 짙었던 일본은 조선총독부 1945년 8월 18일에 수 많은 기독교인들을 사형시키려고 했다”고 밝혔다.

임 목사는 “미국의 히로시마 원폭투하가 바로 이 학살 전에 일어났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일본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다”면서 “역사는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



임헌수 목사가 화상으로 첫날 저녁집회 설교를 전하고 있다.

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목사는 북한의 만행은 일본보다 더욱 심한 것이었음을 설명하면서 설교를 이어갔다. 그는 “일본은 36년이지만 북한은 지난 70년을 농락했다. 우리는 북한 공산화를 잊어서는 안 된다. 1950년 남침해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다. 무장공비사건, 아웅산 폭탄테러, 대한항공 폭파사건, 천안함 침몰,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는 끝도 없다. 그럼에도 북한은 수십 차례의 도발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임 목사는 “71년 동안 우리는 대

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왔다. 하나님의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사를 행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동포들을 향해서는 공활한 마음으로 아픔을 함께 느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임 목사는 “요즘 왜 통일이 필요한지, 또 왜 북한주민을 도와야 하나고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다”면서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옥수수 죽조차 먹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을 보며 아무런 감정이 없어서는 안된다. 설마 없어 뇌 손상을 입는 어린아이들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임 목사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남아있다. 2천만 동포들의 해방”이라면서 “아직도 북한 주민들은 노예와 같이 살고 있다. 8.15 광복을 맞은 이후에도 우리 민족은 아직도 포로로 잡혀있다. 지금까지도 악한 반기독교세력에 의해서 독재자의 종이 되어버렸다. 북핵은 아직도 2천만이 포로로 잡혀있는 곳”이라고 통탄했다.

통일에 대해 임 목사는 “여호와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놀라운 은총을 주셨지만 이제는 북한 땅에 주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통일 시대가 열리면 축복도 열리게 된다.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한다”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은 복음을 들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할 때 이뤄진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임 목사는 “통일을 말하지만 통일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복음전도에 최선을 다하자”면서 “갑자기 통일이 올 것이다. 그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대원 기자

필라안디옥교회 호성기 목사 “선교의 제4물결을 타라” 출판 감사 예배 드려



호성기 목사와 오은혜 사모

필라안디옥교회에서는 호성기 담임목사가 집필한 “선교의 제4 물결을 타라”(국민일보)의 출판을 기념하며, 8월 4일 수요일 저녁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 책의 출판은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가 미주의 한인교회들을 순방하던 중 필라안디옥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에서 기인한다. 백상현 기자는 안디옥교회에서 3세대와 다민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고, 안디옥 교회의 사역 철학과 선교 비전을 국민일보에 25

회에 걸쳐서 연재해줄 것을 호성기 담임목사에게 요청했다. 이후 25주에 걸쳐 주옥같은 칼럼들이 국민일보에 연재되었고, 한번 연재되고 끝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책의 추천자들: 오대원목사(예수전도단), 주선애교수(장신대 영예교수), 이상희교수(세신대), 송정영목사(복음선교회), 김준목사(중앙대), 신정민목사(서울대), 유은지목사(중앙대), 김민석목사(KCC), 김성준목사(KCC)

* 영의 벽에 면죄부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늘 외면하지 않았다’는 북한 건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해성도들의 순교증언으로 저국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관주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책도대량: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부해 드립니다.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새학년 100% 대면 수업 제공

새언약 초중고등학교(교장 제이슨 송, 이하 NCA)는 2021년 8월 9일 월요일부터 100% 대면수업을 진행하며 새학년을 시작했다. 이미 2020년 12월 LA 카운티 보건국으로부터 대면수업 허가를 받은 NCA는 점진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대면수업을 제공해왔다.

전교생은 매일 등교 전 온라인으로 건강상태 리포트를 제출하며, 학교에 도착 뒤, 체온 검사를 받는다. 교사 및 학교 관계자들도 학교에 도착해 체온검사를 받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Form에 상태를 기록한다. 추가로 실내 공간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다.

제이슨 송 교장은 학교 첫 날 등교하는 아이들의 체온 검사를 직접 해주며 학교에 온 아이들을 반

겼다. 그는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오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학생이 학교에 등교 해 선생님과 직접 대화하며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당연히 더 효율적이고 귀한 시간이다”고 했다.

NCA는 WASC 공식인증받은 K-12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한인 타운내에선 유일한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명문 학교다. 1999년에 설립되어 졸업생전원이 적어도 UC 계열 대학에 진학하고, 그 중 다수는 전국 톱 30대 대학에 진학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 NCA에 대한 질문 및 의뢰는 sally.min@e-nca.org 에게로. 학교 웹사이트 주소는 www.e-nca.org 그리고 SNS 는 Facebook (@ncahuskies), Instagram (@nca_huskies) 이다.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녕하세요? 18년의 경력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540 E Vine Ave, West Covina, CA 91790
(714)718-5239, (213)531-7215
admin_kor@itsla.edu
www.itsla.edu

“미국연방인가기관 ATS 정회원” (2006년 취득)
1천명 이상의 세계 각국 교회 지도자 및 목회자 배출, 신학적 깊이와 사역경험이 탁월한 한미 교수진

2021년 여름학기 한국어 학위 과정

입학생 전원 장학 혜택 온라인 수업 제공 유학생 1-20 발급

모집 학위과정 및 지원자격

학위과정	지원자격
MATS (신학 석사)	교육부 인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M.Div (목회학 석사)	교육부 인가 4년제 대학졸업자 교육부 인가 M.Div 학위 혹은 동등 학위 졸업자
D.Min (목회학 박사)	교육부 인가 4년제 대학졸업자 교육부 인가 M.Div 학위 혹은 동등 학위 졸업자

장학금
2021 여름학기 전 입학자 (25%) 장학금 혜택
목회자(30%), 선교사(40%) 장학금 혜택

제출서류

1. 입학원서
2. 신앙 및 지원동기 진술서
3. 대학(원) 졸업증명서(영문)
4. 성적증명서(영문)
5. 추천서(목회자 혹은 신학교 교수)

* 입학서류 양식은 한국어 프로그램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방법 서류심사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2021년 5월 10일(월)~5월 28일(금)
합격자 발표	2021년 6월 10일(목)

입학 전형료 및 수업료

학위과정	입학 전형료	학점당 수업료
MATS (2년)	USD 50	USD 250
M.Div (3년)	USD 50	USD 250
D.Min (2년)	USD 100	USD 350

여름학기 일정(5주)
7월 5일(월)~8월 6일(금)

입학문의 www.itsla.edu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TS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714)718-5239, (213)531-7215 /admin_kor@itsla.edu

여의도순복음교회 위임목사 이영훈, Ph.D.
ITS신학대학원은 예수님을 모른채 방황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전 미국, 나아가 세계를 복음화 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총장 이승현 (James Lee), Ph.D.
1982년 개교한 ITS 신학대학원은 탁월한 교수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으며 2006년 이래 미국의 우수한 연방인가 기관 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의 정회원입니다. 미국 ITS가 제공하는 깊이 있는 강의와 실질적인 훈련들을 한국어 온라인 과정을 통해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18

“아프카니스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주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이 탈레반 무장세력에 의해 수도 카불이 점령당하면서 무너졌다.

지난 6월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던 미군이 전격 철수하고 미국 기업들이 모두 철수하고 난 직후의 일이다. 미국이 철수하자마자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료들은 대부분 외국으로 망명했다. 군대도 없어졌다. 탈레반 무장세력에게 나라를 넘겨주었다. 탈레반은 이제 정권을 잡은 한 국가의 정부가 되었다.

카불 공항에는 마지막 미국인들을 수송하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 비행기에 올라타려는 피난민들이 매달렸다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텔레비전에 비쳐졌다. 수만의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는 모습이 영상을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미 수백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중동의 여러 나라로 퍼져 있는 상태에 앞으로도 목숨을 건 본국 탈출 난민이 속출할 것이다. 미국이 지난 20년간 수천 명의 미군이 전사하고 2조 달러 이상의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었는데도 탈레반 세력을 없애지 못했다. 미군 철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으니 그 공약을 알면서 그를 선택한 미국인 전체가 아프가니스탄을 버렸다. 물론 필자도 법적인 미국인으로서 같은 책임을 져야 함을 알고 있다.

필자는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아직도 미국의 힘에 의지하고 있는 고국 대한민국에 대한 기도가 절로 나왔다. 대한민국도 국민 정서가 좌파, 우파로 나누어진 상태라 만약 미군 철수와 미국이 우방국에서 손을 놓는다면 그 후엔 어찌 될까 근심이 커진다.

필자에게 아프가니스탄은 “순교의 땅”이다. 2004년에 온누리교회 파송 NGO 사역자 김선일 씨는 민간인 봉사자로 주민에게 담요를 나눠주다가 탈레반에게 끌려가 순교하였다. 그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하여 미국에서는 그 참혹했던 모습을 생생히 볼 수 있었다.

2007년 탈레반에게 분당샘물교회 선교단 23명이 피납되었고 그 중에 배형규 목사, 심성민 형제는 순교하였다. 그로 인해 샘물교회와 박은조 담임목사는 극심한 비난과 핍박을 받았다. 2010년 인터콧 선교회 파송 이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노아 선교사는 카불 시내 시장 전 도사역 중 폭탄테러로 순교하였다. 남겨둔 아내와 두 딸은 지금도 그 땅에서 계속하여 선교사역 중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땅을 밟고 그곳에서 순교한 우리의 형제들의 순교의 피가 많이 뿌려진 나라인데 그들의 순교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 무언가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그 땅을 향하시고 있음을 믿으면서도 왜 이리 가슴 아픈의 눈물이 흐르는지?

지난 7월까지도 미국의 단기선교팀들이 들어갔던 땅이다. 필자의 교회 성도 중에서도 여러 명이 매년 선교지로 나가던 땅. 이제 언제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밟을 수 있을까? 샘물교회가 파송한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들도 순교 이후 계속하여 파송 받고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지금까지도 헌신하고 있는데, 이제 그 땅의 장기 선교사들의 진로는 어찌 되어야 하나?

필자는 한가지 내가 만난 터키에서의 난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본다. 이미 20년 전부터 아프가니스탄 내전을 피해 탈출했던 난민들이 많이 있다. 그 난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된 영혼들이 많다. 그들의 복음화율은 거의 20퍼센트 이상이 될 것이다. 점점 더 난민 가운데 복음화율은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 난민들을 후에 그 나라의 리더십으로 쓰실 것이다. 혹독한 고난을 뚫고 생존하고, 버텨온 고난의 민족들을 하나님은 미래의 주역으로 세우실 것이라 믿는다.

민족들의 원한과 분노, 내전과 갈등을 힘이 강한 미국 같은 나라들도 해결할 수 없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과 평화이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표현할 때 우리는 “위기”라 쓰고 “기회”라 읽자.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② “헤롯 가문을 소개합니다(2)”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는 BC. 63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로마 편에 섭니다. 친 로마적 그의 행동에 로마정부는 권력으로 보상합니다. BC. 47년 율리우스 시저(Julius Caesar)는 안티파테르에게 로마 시민권과 유대지역 총독 자리를 줍니다. 헤롯 가문의 로마정권과 밀월이 시작됩니다.

그가 유대를 차지한 다음 자신처럼 야심만만한 아들 헤롯을 갈릴리 지역 통치관으로 임명합니다. 영리한 헤롯 대왕은 권력의 메커니즘에 관해서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하스몬 왕가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 유대 내부 반발을 정리하고 로마의 실력자를 후원자로 모시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헤롯은 천재성이 번뜩이는 감각과 근성으로 로마의 권력과 줄타기를 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을 지켜주는 로마 후원자(주군)의 승패와 상관없이 권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헤롯은 주군이 망해도 자신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왕은 처음엔 카시우스를 섬겼고, 카시우스가 안토니에 패하자 안토니를 따릅니다. 안토니가 헤롯을 유대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안토니와 옥타비아누스가 싸울 때, 헤롯은 안토니를 돕습니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이쯤 되면 헤롯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가 왕의 복장을 해체하고 일반 평민 복장을 하고 카이사르(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우구스도) 앞에 나아가 생명을 걸고 상소합니다. 헤롯 자신을 구한 상소(上訴)는 대략 이렇습니다. “저는 저를 세워준 안토니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저의 은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패했습니다. 저는 왕관을 벗어 던지고 오직 폐하의 덕만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살아온 신실함과 의리를 봐 주시고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남은 생명 황제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거칠게 간추린 내용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런 헤롯의 말을 듣고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황제답게 대답합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좋다! 그대를 살려 주겠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확고한 왕의 자리를 보장해주겠다. 대신 그대는 안토니를 섬겼듯이 나를 섬기기를 바란다. 변함없는 충성으로 나를 따르도록 하라!” 물론 이것도 거칠게 간추린 내용입니다. 헤롯은 권력에 대한 천부적 감각과 집념으로 유대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로마 황실의 든든한 후원으로 유대 왕이 되었지만 유대인들의 지지는 받지 못합니다. 헤롯은 늘 불안했습니다. 로마 지지를 받기 위해 유대인 지지가 필요했고, 유대인 지지를 받기 위해 로마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일평생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했습니다. 헤롯 대왕의 모든 치적은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신약신학자 임진수 박사는 헤롯의 통치기간을 3기로 나누며 왕권을 세워가는 헤롯대왕의 삶을 추적합니다. 임박사의 글을 거칠게 간추립니다. 먼저, 헤롯의 1차시기(BC 37~27년)로 권력 강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헤롯은 권력을 강화를 위해 정적들, 주로 자기 왕권 찬탈 반대파를 제거합니다.

둘째, 2차시기(BC 27~13년)로 건축사업 기간입니다. 왕권 강화에 성공한 헤롯은 건축에 몰두합니다. 사마리아를 헬레니즘 도시로 재건하고 아우구스투스를 경외하는 의미로 세바스테(라틴어 Sebaste=Augustus)로 부르며 황제 신전을 세웁니다. 12년간 공사로 건설한 국제 해양도시는 황제에게 헌정하며 ‘가이사랴’로 부릅니다. 헤롯의 대표적 건축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9년간의 공사로 예루살렘성전은 헬레니즘 풍미가 득한 건물로 거듭납니다.

셋째, 3차시기(BC 13~4년) 유희 숙청 기간입니다. 헤롯 왕가의 숙청의 역사는 피비린내 납니다. 헤롯은 장모, 처남, 아내 그리고 자신의 친아들을 죽입니다. 권력을 빼앗길 것과 배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헤롯은 유언장을 세 번이나 바꿔 씁니다. 자신을 믿었던 사람들, 가까운 가족들을 죽인 그는 아들조차도 믿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했던 아내, 친자식들을 죽이면서 왕권을 지키던 헤롯에게 새 왕이 등장했다는 동방박사들 말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소동(마2:3)합니다. 돌아와 새 왕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던 헤롯의 뜻을 어기고 동방박사들이 탄 길로 돌아가자 헤롯은 광분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과 근방 지역의 영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합니다(마2:16-18).

헤롯의 가정사는 끊임없는 의심, 모함 그리고 처형으로 불행과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트리니티 신학교 근동연구소 소장인 배리 벨젤(Barry J. Beitzel) 박사는 ‘헤롯은 10번 결혼했는데 모두 정치적인 결혼이었다.’고 말합니다. 헤롯의 인생은 불행한 권력자의 전형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하던 해에 죽습니다. 그는 온몸이 썩어가는 병으로 극심한 고통 중에 죽었습니다. 나고야 난잔(南山)대학에서 신학을 강의하는 야누스 크시키 박사는 헤롯이 죽기 5일전에 아들 안티파테르의 사형을 로마 황실로부터 받고 집행했음을 지적하며 헤롯의 잔인성을 강조합니다.

헤롯의 건축물과 초대교회 역사 연구에 몰두하는 아일랜드 학자 바바라 메리(Barbara Mary Denise Bergin)는 건축가 헤롯을 강조합니다. 헤롯은 로마와 유대의 지지를 얻으려고, 자신의 능력 과시용으로 건축에 몰두했습니다. 처남, 장모, 아내 그리고 아들들을 죽이며 지키려 했던 그 권력욕의 끝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슬프고, 가슴 아픈 것은 악하고 저주스러운 헤롯대왕의 삶이 그의 자손들의 삶에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예배 음악의 가사와 예술적 기교, 누구를 위함인가?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10)

본지는 월드미션대학교 윤임상 교수의 소논문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을 연재합니다. 오늘의 예배 음악을 진단하고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교회 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편집자 주



국내 한 교회의 성가대 찬양 모습(이미지는 본문의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II. 초기 기독교 예배를 통해서 본 예배와 음악

2. 오늘날 교회 예배에 주는 도전들

2) 순수한 열정의 찬양이 있는 찬양 공동체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 예배음악의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예배찬양관을 정립하며 초기 기독교 교인들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예배찬양에 대해 제시할만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서술하며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찬양 가사의 현 주소를 점검하며 바른 예배찬양 가사를 정돈해야 한다.

초기 기독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예배였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결론은 삼위 하나님을 칭송하고 송축하며 영광돌리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것을 많은 부분에서 발견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었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 찬양의 가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찬양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많은 부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보다 삼위 중 한 분에 집중이 된 혹은 내가 중심이 되어 내 삶의 윤리, 고백 등이 더 강조 되어 가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다.

초기 기독교 예배를 연구하는 듀크대학의 레스터 루스(Lester Ruth) 교수는 오늘날 미국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의 가사를 연구하며 다음과 같은 통계를 내놓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언급하는 곡은 모든 다섯곡안에서 한 곡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도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직접 언급된 찬양은 열 곡 중 한 곡도 채 안된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하는것은 전체 곡

중 다섯곡이 된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직접적으로 언급된 곡은 다섯 곡 중 한 곡에 이른다는 연구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와 같은 통계는 우리 한국교회와 다를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미국 찬양들을 주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우리의 현실이 오히려 이 통계에서 나온 결과 보다도 더 낮게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가사가 나타날 수 있을것이다.

오늘날 교회음악 지도자들은 먼저 가사에 깊은 주안점을 두고 음악의 전체 흐름을 점검하여 곡을 선택해야 한다. 한편 새롭게 곡을 쓰는 작곡가들은 본인이 직접 가사를 만들어 음악에 그 가사를 대입시키려 하는것 보다는 성경의 내용이나, 성경, 신학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작시자들에게 의뢰하여 가사를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곡을 쓰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예배찬양의 음악적 기교를 점검하여 바른 음악적 기능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초대교회 예배 공동체에서 드렸던 찬양은 다양하지만 단순하였다. 그러나 열정이 넘치는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사건을 찬양했던 아름다운 공동체였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6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그레고리안 성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구적으로만 전해오던 유대교, 초대 기독교 교회의 예전과 찬양을 수집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긴 것이기에 그것을 통해 그들이 어떠한 가

사와 음악으로 찬양했는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레고리안 성가는 예배를 위한 기능음악으로 인간의 감정을 배제한 비 개성적이고 객관적인 음악이며 신앙심을 고취하는 내면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 그레고리안 찬트는 하나님을 찬양드림에 있어 좋은 교범이 되는 중요 단서이다.

오늘날 예배음악은 화려한 예술적 기교와 아름다움에 더 심취되어 가고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예술적기교와 아름다움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것이 문제이다.

한국교회의 예배와 음악을 쓴 김춘해 교수는 “지금의 교회음악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음악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에 관심이 많은것 같다.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을 교회에서 연주한다” 라고 이야기 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음악은 그 예술성, 아름다움 이전에 단순함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지닌 채 하나님을 송축하려는 그 소중한 마음을 원하신다. 오늘날의 급속하게 발전되어가는 음악 예술을 물론 저버릴 수 없다. 그것도 결국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모든 기교와 기술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요, 수단이 지 그 이상 즉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행위를 점검하여 바른 예배자들이 되어야 한

다. 초기 기독교 예배자들은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아 응답송(Responsorial) 형태로 또는 교창송(Antiphonal) 형태로 매 순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찬양을 드렸던 예배자들이었다.

오늘날 현대 문명이 주는 이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마음가짐을 흐트러 트리고 열정의 찬양을 갖지못하게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는 경향이 많았다. 하나의 예로 오늘날 예배에서는 성경 찬송이 스크린을 통해 모두 안내를 해 주기때문에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찬양을 드릴 때 찬송가를 들고 찬양하는것과 찬송가 없이 스크린에 의존해서 찬양하는 것은 마음가짐이 다를수 밖에 없다. 찬송가를 손에 직접 들고 찬양할 때에 더 깊이 가사를 묵상하며 열정으로 드리게 될 확률이 높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지닌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을 담아 최상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것이 필요하다.

초기 기독교 교회 예배자들은 찬양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올바른 찬양을 드린 예배공동체였다. 오늘날 우리 예배 찬양의 현실을 진단해 볼 때 초대교회 찬양 공동체보다도 훨씬 다양한 장르와 음악적 기술을 갖고 화려하고 뜨겁고, 그리고 열정적인 찬양을 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열정이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모습에 더 치우쳐 있는지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한다.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 1933-2007) 교수는 오늘

의 예배 찬양을 “합리주의(Rationalism), 감정주의(emotionalism), 그리고 오락적(entertainment) 요소의 어느 한 쪽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 고 지적한다. 이 요소들은 결국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려는 강한 본능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인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배와 음악의 한 단면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것이라 생각한다.

초기 기독교 교인들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 찬양을 보며 재 정돈(re-set) 하라고 강하게 권고하는것 같다. “오늘날 크리스찬 예배자들이여 찬양의 본질적 요소를 갖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존귀케 되는 가사와 음악적인 기교, 그리고 하나님만을 향한 열정의 찬양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고 말이다.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이사장 : 조종관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 adm@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사,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 (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kdi.com

전 몰몬교 선교사, 침례교 목사와 변증하다 전도돼

신실한 몰몬교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한 남성이 자신의 간증을 전하며 기독교인들에게 과감하게 복음을 나눌 것을 권면했다.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소개된 간증에 따르면, 마이카 와일더(Micah Wilder)는 몰몬교(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 LDS) 안에서 신앙의 표본으로 자랐다. 그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부터 지도자로 봉사하는데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왔다.

그는 "우리 가족들에게 몰몬교는 주일 아침에 한 번 출석하는 정도가 아니었다. 우리 삶의 정체성의 일부였고, 우리의 모습이었다. 다른 모든 것은 이러한 정체성에 따랐다"며 "우린 멋지고 행복한 가족의 원형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와일더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어머니가 일하던 유타주에 위치한 브리검영대학교에 입학해 한 학기를 다녔다. 그 기간, 그는 몰몬교 사

원에서 일하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2년, 즉 LDS 선교에 대비했다.

그는 "몰몬교는 사역에 기반을 둔 신앙이다. 그래서 충실하게 교회에 출석했다. 십일조를 하고, 도덕률을 따랐고, 몰몬교 신전에도 갔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권리에 기여했다고 믿었다. 난 그분과의 친밀함을 갈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념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신앙의 기준에 따라,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되고 싶었다. 물론 유감스럽게도 내가 충분히 해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깨를 짓눌렀다"고 했다.

19세 때 와일더는 LDS 교회 선교사로서 플로리다주 올랜도로 파송됐다. 선교가 시작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침례교 앨런 벤슨 목사를 만났다. 그는 벤슨 목사에게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거듭났다고 주장하며, 그 은혜를 죄악과 육신의 뜻대로 살기 위한 자격증으로 사용한다고 배웠다"고 말했다. 물론 그는

해와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믿음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마음과 개인을 변화시키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러자 벤슨 목사는 부드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와일더는 "벤슨 목사는 내게 복음을 전해주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값을 충분히 치렀다고 내게 말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우리의 죄가 씻겨나가고 용서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복음이 이렇게 전해진 것은 처음"이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나의 주된 반응은 '복음이 너무 단순하다'였다. 그것에 매우 당황했고, 자라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성경구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느꼈다. 화가 날 정도로 답답한 경험이었다"고 했다.

그러자 벤슨 목사는 와일더에게 "어린이와 같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아무런 전제 없이 하



마이카 와일더. ©크리스천포스트

나님의 말씀을 보고, 몰몬교의 종교적 렌즈와 분리된, 겸손과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말씀에 접근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성경에 대한 그의 관심은 최고조에 달했고, 그는 이후 20개월을 신약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으며 보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선행이나 의로움, 업적이나 노력이나 공로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업적과 유익만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선하게 설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2년간의 사역이 한 달도 남지 않았을 때, 와일더는 LDS 지도자들과 부딪히게 됐고 그의 사역은 끝났다. 그는 지도자들에게 훈련을 받기 위해 유타로 돌아왔다. 그는 지도자들에게서 악마의 영이 가득하고 그에게 속고 있다며 지옥으로 가는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당시 브리검영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그의 가족, 친구, 고등학교 생이었던 여자친구 알리사에게 자신의 신념을 공유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역사하셔서, 알리사는 성경을 읽고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였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몰몬교를 떠났고, 어머니는 직장도 그만두었다. 그는 "가족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이는 가장 위대한 거래였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美 비영리단체, 학생들 성경 교육 위해 21억원 기부



해밀턴카운티학교(HCS)는 지역의 비영리단체인 선택 프로그램인 '성경 역사(Bible History)'를 위해 180만 달러의 금액을 지원받았다. ©트위터

한 비영리단체가 테네시주 학교에서 매년 진행되는 성경 선택과정을 위해 180만 달러를 기부했다. 기독교일보 영문판에 따르면, 채터누가에 위치한 해밀턴카운티학교(HCS)는 지역의 비영리단체 선택 프로그램인 '성경 역사'(Bible History)를 위해 이를 지원받았다. 이 비영리단체는 1922년부터 HCS와 파트너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학년도에 29개 공립학교에서 4,6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성경 역사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이 학교는 6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을 위해 5개의 성경 수업을 제공한다. 6학년은 '창세기', 7학년은 '출애굽기', 8학년은 '예수의 삶', 9-12학년은 '신약성경 역사'다.

HCS 교장 브라이언 존슨 박사는 "해밀턴카운티학교를 대표해 '성경 역사'의 선물을 다시 한 번 받게 되어 영광이다. 이 선물은 우

리 지역 공립학교 학생 수천 명의 교육을 후원한다. 학교 전체에서 진행되는 성경 역사 선택과정은 6-12학년 학생들이 고대 텍스트와 현대 세계 사이 풍부한 문화적 연관성을 인식하도록 장려한다"고 했다.

존슨 박사는 "해밀턴카운티는 미래를 대비하고 대학과 직업적 성공을 준비하는 대학원생들을 찾고 있다. HCS는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역사적으로 풍부한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세계적 사상가이자 책임있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기부금은 이 단체가 학교에 기부한 금액 중 최대 규모다. 2017-2018년에는 130만 달러, 2018-2019년에는 150만 달러, 2019-2020년에는 170만 달러를 기부했다.

'더 스쿨즈바이블'(The School's Bible)의 톰 글렌 이사장은 "학교

설립 10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이 선물은 지역사회 많은 기부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이를 공립학교에 드러낼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 이러한 관대함을 통해 '성경 역사'의 선물을 많은 젊은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성경 역사의 케시 스콧 회장은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학생들이 역사에 대한 성경의 '풍부한 문화적 발자취'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문제도 함께 다루면서 '소망, 가치, 삶의 교훈' 등을 준다"고 했다.

아울러 스콧 회장은 학생들의 성경 지식이 '원형 교육'에 필수적이라는 단체의 믿음을 지지자들과 공유하면서, 이들이 '수동적 관찰자'가 아닌 '적극적 공헌자'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해밀턴카운티 그래픽 마틴과 스티브 하이랜더 위원도 이 프로그램을 추천했다. 마틴 위원은 "학교에 성경을 기여한 이들의 관대함에 힘입어 카운티에서 성경 역사를 가르칠 수 있었다"고, 하이랜더 위원은 "수년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에 감사하고, 연방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이랜더 위원은 "성경에 대해 알지 못하면 완전히 교육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언급도 공유했다. 강혜진 기자

NBA 제레미 린, 코로나 확진... "두려워 말라" 성구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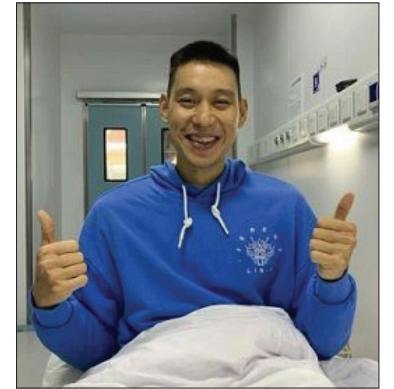
전 NBA스타 제레미 린 선수가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제레미 린 선수는 지난 7일 병원 침대 위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상하이에서 격리 사흘째 되는 날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출국 전 두 차례 백신 주사를 맞고 음성 반응을 보였고, 도착 후에도 음성 반응을 보였다. 여행 중 매우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격리 3일째 코로나 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그는 "내 경우는 증상이 가벼운 편이었으나,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어땠는지 상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만계 미국인인 린은 NBA 그리그 산타크루즈 웨리우스 시절인 6월, 중국농구연맹 베이징 덕스에서 뛰기 위해 중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백신을 맞아 코로나19 환자 증가세를 막는 데 일조했다.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을 원하는 이들이 너무 많고, 이는 가벼운 증상과 심각한 증상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제레미 린 선수. ©인스타그램

신실한 신앙인으로 알려진 그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이사가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 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울 것이라 반드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를 인용했다.

그는 "병원에 앉아 있는 동안 회복이 너무 느려 화가 났었다.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없음을 상기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지하숙소복원과 복벽동족(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세요!

지난 여름 태풍으로 붕괴된 숙소 (10명의 고아들 거주) 복원과 동족들과 어린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절과 성탄절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이 될 것이고 복음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1919유관순" 교회/단체관람(안내)

3.1운동 100주년과 유관순 서거100주년을 기념하고, 초대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사랑과 나라사랑을 감동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커다란 울림과 사명을 준다. 주중 혹은 주말과 주일에 교회단체관람가능, 관람료는 관람후 자발적인 헌금 혹은 \$300 관람비로 합니다. 내년 3월 유관순 서거 10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에 역사인물로 등재가 됩니다 (관람신청은 아래연락처).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고난의 대항군 때, 그 땅에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술한 입제와 통제속에서도 성경을 알게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복음통일의 귀한 병기들로 세워져가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_복상원 목사(편저자)_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20/권당+우송료\$5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기드온동족선교회는 매달 북녘의 동족어린이들에게 영양빵 3,000~5,000개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참여하여 도움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아둔 동전들이 있다면 성탄절 전에 보내주세요. (참여방법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16825 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el. 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 www.gideonbrothers.org
 돕는 방법: Pay to: G.B.M.W(체크오더명)로 기입해서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연말세금공제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美 마이크 펜스 “낙태옹호법, 역사의 잣더미로”

영아메리카재단 모임 연설에서 기도 요청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백악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낙태를 합법화한 소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 폐지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일보 영문판에 따르면, 펜스 전 부통령은 13일 열린 ‘영아메리카재단’(YAF) 모임에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대법원이 곧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지하고 낙태 반대론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크리스천헤드라인과의 인터뷰에서 “난 여러분들의 나이 때부터 친생명 운동을 해왔으며, 지금처럼 우리가 미국 법의 중심에서 생명의 신성함을 회복할 날이 가까워졌다고 낙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에는 닐 고저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바렛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3명을 비롯해 생명을 수호할 것으로 보이는 이들이 있다. 1930년대 이후 가장 보수적인 대법원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올 가을 임신 15주 이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낙태법과 관련된 사건의 심리를 앞두고 있으며, 보수주의자들은 그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주 법을 유지하기로 선택한다면, 로 대 웨이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CP는 전했다.

펜스 부통령은 “만약 우리가 법의 중심에서 생명의 본질적인 중요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운동의 특징인 긍휼함을 갖게 되다면, 미 대법원의 새로운 다수가 우리의 새 출발을 시작하게 해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자, 로 대 웨이드를 역사의 잣더미로 보낼 날을 위해 기도하자”고 했다.

펜스 전 부통령이 보수 성향의 친생명주의자들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USA투데이는 지난 7월, 펜스 전 부통령의 보수 지지자들 모임인 ‘어드밴스 아메리카 프리덤’(AAF)이 임신 15주 이후 미시시피 낙태금지법을 지지하기 위한 간략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펜스와 AAF는 대법원이 올 가을에 심리할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이 같은 보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인간 생명의 가치를 경시하는 것과 태아 보호에 대한 사회의 기본적 관심을 최소화하는 것은, 그들과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혜진 기자

교회

LA 지역

LA백송교회
백합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주일예배 오전 11:00, 교우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 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키우고 0.1만2세를 섬김지체,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신교령을 순증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en 코너)
T. (213) 386-223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교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유초등부 오후 10:3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1블럭)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2:30, 4부예배 오전 1:30, 5부예배 오전 2:30, 6부예배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커뮤니티를 살리는 예수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김성지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3부예배 (분당) 오후 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 금) 오전 5:30, 리소에(엘리멘테) (소셜비시)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디오 오후 6:3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신.초.진 신인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2:30, 4부예배 오전 1:30, 5부예배 오전 2:30, 6부예배 오전 3:30, 7부예배 오전 4:30, 8부예배 오전 5:30, 9부예배 오전 6:30, 10부예배 오전 7:30, 11부예배 오전 8:30, 12부예배 오전 9:30, 13부예배 오전 10:30, 14부예배 오전 11:30, 15부예배 오전 12:30

이명수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10:30, 2부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산타모니카 만민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2:30, 4부예배 오전 1:30, 5부예배 오전 2:30, 6부예배 오전 3:30, 7부예배 오전 4:30, 8부예배 오전 5:30, 9부예배 오전 6:30, 10부예배 오전 7:30, 11부예배 오전 8:30, 12부예배 오전 9:30, 13부예배 오전 10:30, 14부예배 오전 11:30, 15부예배 오전 12:30

곽부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삶이 되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LA동부, 라스베가스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갯스월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이희철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es.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 목)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ter 오전 10: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오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영철 담임목사

美 루이지애나주, 코로나 변이 재확산 속 ‘금식과 기도’ 촉구



기도하고 있는 미 기독교인들(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이스트로저빌침례교회 제공

존 벨 에드워즈 루이지애나주지사(민주당)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주민들을 위한 금식과 기도를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주 정부는 11일 460만 명이 넘는 주민들 중 6,088명이 새로 감염됐다고 전했다. 2020년 3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집계 시작 이후, 합병증으로 59만 7,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11,353명이 사망했다.

에드워즈 주지사는 지난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주민들에게 9-11일 정오 금식을 촉구하는 한편, 의료진들과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그는 이날 수백 명의 성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오 식사부터 금식을 하자고 먼저 요청했고, 그 후 모든 루이지애나인들에게 동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에드워즈 주지사는 “저는 기도의 힘을 굳게 믿는다. 그리고 현재 루이지애나에는 기도의 힘이 필요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하나님의) 치유와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환자들이 이 질병과 잘 싸울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이 강하고 안전하도록, 학생들과 교사들이 안전하게 학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이 끔찍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했다.

에드워즈 주지사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입원이 증가하자, 5세 이상의 모든 이들에게 안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일시적으로 부활시켰다.

주지사 측은 지난 2일 “루이지애나의 낮은 백신 접종률과, 전염성이 매우 높은 변종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루이지애나는 1인당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의 시행은 4번째 코로나19 확진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바이러스 유행에 대응해 기도 및 금식을 요청한 주지사는 에드워즈 주지사가 처음이 아니다.

작년 케빈 스티트 오클라호마주지사는 주민들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12월 3일을 단식과 기도의 날로 선포한 바 있다.

당시 스티트 주지사는 “오클라호마 인들은 항상 불확실성의 시기와 시련을 헤쳐나가기 위해 기도를 했다”며 “난 모든 신앙과 종교적 배경을 가진 오클라호마 주민들에게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1학년도 여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학생 수시 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1 여름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30 PM - 9:30 PM	중세교회사	Daniel Min
Wed	8:30 PM - 10:30 PM	시편강해2	Timothy Song
Thu	7:30 PM - 9:30 PM	고린도전후서	James Lee
Fri	8:30 PM - 10:30 PM	기독교상담학2	Elijah Kim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영적성장의 단계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히브리서 6장 4절 - 8절

한때는 불교와 마호메트교에 심취했다가 43세의 다소 늦은 나이에 기독교 신앙으로 귀의한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코트 펙(M. Scott Peck)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영적 성장의 단계를 4단계로 의미심장하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영적 성장의 1단계는 혼돈과 비상식적, 반사회적 단계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 이기적 삶을 추구합니다. 모든 것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자기 자신이 있는 자리를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며 혼돈 속에서 욕심을 따라 사는 단계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이 여기에 속하는 전형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적 성장의 2단계는 형식적, 제도적 단계입니다. 어떤 형식이나 제도, 그리고 자기가 속한 집단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속한 직장 또는 교회에 소속된 것으로 만족하는 소위 모범적 직장인들, 시민들 그리고 종교의 형식을 철저히 고수하는 신앙인들입니다.

이들은 예배 형태나 찬송가 등이 바뀌어지는 일이라도 있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얼핏 보면 정돈되고 바른 것 같지만 그러나 제도와 형식 속에 갇혀 진정한 본질은 알지 못하고 자유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성장의 3단계는 회의적, 개인적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사회의 제도, 교회의 형식에 의심을 갖고 반기를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반기를 드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면이 있으며 이 단계의 사람들 중에는 책임 있는 부모, 상식적 삶, 사회 정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형식적, 제도적 신앙에 대하여 회의하고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교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한 발짝 떨어져 맴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내면의 세계는 오히려 2단계의 신앙인들보다 깊은 고민과 신앙을 가진 성숙한 신앙인들입니다. 단지 불신앙처럼 보이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오해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적 성장의 4단계는 신비적, 공동체적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신앙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생과 세계가 깊은 신비와 모순이 있음을 알고 인간의 만남과 교제를 중요시 하고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조화와 일치를 추구하는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스코트 펙이 말한 영적 성장의 4 단계는 인간의 정신적, 영적 성숙의 공식일 수는 없지만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합니다. 오랜 교회생활이 높은 신앙의 성숙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신앙의 번지수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 하는 열심만이 좋은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직분을 갖고 종교의식을 잘 행하는 것이 좋은 신앙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회의하며 정직하게 의심하는 신앙이 귀한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신앙이라는 이름의 이기주의, 신앙이라는 이름의 형식에 만족하는 신앙, 신앙이라는 이름의 불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의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좋은 신앙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보다 나은 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의심을 극복하는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순과 역설, 신비를 흔쾌히 인정하면서도 자유를 누리며 확신을 가지고 삶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찬양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신용환 목사
나성한미교회

시편 22:1~10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호흡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찬양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수 있는 이기심 없는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많은 시편중 시편 22편은 <고난속에는 있는 목자의 노래, 메시아 고난의 노래, 수난의 시편, 메시아적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스펠전은 ‘십자가의 시’라고 했고, 데일 J 쿠퍼는 ‘버림받음과 신앙 사이에서’라는 제목을 붙이고 강해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우리를 위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랄게도 다윗의 고통속 찬송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외침과 같았으나, 결국은 고통으로 울부짖는 기도에서 찬양으로, 고난의 탄식과 절망에서 찬양의 기쁨과 승리로 바뀌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찬양으로 바꾸는 다윗의 노래, 고통을 구원으로 바꾸시는 예수 십자가의 노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고통에 둘러싸이고 에워싸였다고 말합니다. 이 다윗의 노래가 마치 새벽 사슴의 고통과 울음을 담고 있다면,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의 노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향해가는 동안 이 고통과 괴로움에 에워싸움을 당하셨습니다. 어두운 고통의 밤을 지난 새벽 사슴의 노래와 처절한 절망과 울부짖음의 다윗의 고통의 노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노래 너무나도 놀랍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

러분은 어떤 고통과 고난에 에워싸임을 당하고 둘러싸임을 당하고 포위당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 마다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힘든 순간은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든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필요한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부재가 보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고통입니다. 예수님도 다윗과 같은 이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경험하신 하나님의 부재의 고통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부른 모든 찬송의 내용이며 이유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고통속에서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위해서 찬송중에 거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통중에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한숨을 바꾸십니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십니다. 헨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그리고 할렐루야 합창도 바로 그런 극심한 삶의 고난과 고통,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찬양은 절망과 고통을 할렐루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진정한 찬양의 고백에 우리의 진실된 고통을 담아 내야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나의 고통중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찬양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한숨을 찬양으로 우리의 슬픔으로 춤으로 바꾸시길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힘이며 능력입니다.

이병구 박사의 선교 운동의 핵심 인물을 찾아서

현대 선교 운동의 기초를 놓은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 (August, Herman Franke, 1663-1727)



이병구 박사
그레이스 미션대학 박사원장

기독교 역사를 선교적 관점으로 기독교 역사 전반을 조망하고 서술한 역사학자 케네스 스코트 라투렛(Kenneth Scott Latourette, 1884-1968)은 “18세기 이후를 위대한 선교 시대(The Great Century of Mission)”라고 평가하였다. 이유는 18세기 동안 이룬 선교 역사보다 18세기 이후 이루어진 선교 운동이 큰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18세기 이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케리(William Carey, 1761-1834)를 중심으로 선교회를 조직하여 선교 대상자들을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적극적인 선교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해안 선교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위대한 선교 시대는 우연히 도래 한 것이 아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현대 선교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별히 오늘은 경건주의 운동을 선교 운동으로 발전 시킨 프랑케를 살펴보자 한다.

프랑케는 독일 경건주의의 대표적인 스페너(Philip Jacob Spencer, 1635-1705)가 1694년 할레(Halle)에새운 할레대학교를 계승하면서 경건주의 운동이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현대 선교 운동에 큰 기여를 하였다. 프랑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프랑케는 1687년 웨네부르크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를 작성하던 중에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된다. 이런 회심은 프랑케에 의해 형성된 할레 경건주의의 주요 특징이 되었다. 프랑케는 1691년 할레 근교에 있는 글라우하(Glauchau)의 성 게오르겐(st. Georgen) 교회의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1691년 베를린에서 친구이자 스승인 스페너를 만나 경건주의 운동에 동참하게 되고 1698년 할레대학교 교수로 임명을 받게 되면서 할레 대학교를 근대 선교 운동의 전

초기지로 만들게 된다.

경건주의자들은 첫째 진정한 회개와 삶의 변화, 둘째 성경공부와 기도, 친교, 영적 성장, 셋째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프랑케는 이러한 스페너의 경건주의 운동에 크게 감동을 받는다.

프랑케는 교회의 영역뿐만 아니라 독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프랑케는 정통주의의 토양 아래서 자랐으며 문명과 경건을 겸비한 인물이다. 특히 회심을 통하여 사변적인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것이 토양이 되어 교육사업과 선교 사업에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그가 사역하였던 글라우하 도시는 독한 포도주를 생산하는 주류산업이 발달 되었다. 따라서 알콜 중독이 심각한 문제이었다. 한 집 건너 술집이었다. 1691년 페스트로 인구 절반이 죽었다. 화재로 할레 도시 대부분이 잿더미로 변했다. 독일의 30년 종교 전쟁으로 800만명의 사망자가 생겼고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 교회 역할과 새로운 활력화 개혁을 이끌었다.

필자는 프랑케를 선교 운동의 핵심 인물로 보는 이유는 그는 삶의 현장을 떠나서 수도원으

로 가지 않고 사회변혁을 위하여 교회의 역할을 찾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침체되고 전통만 남아 있는 루터교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교회의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변화에 앞장 섰다는 것이다. 프랑케는 “개인의 철저한 회심을 통한 사회 개혁”이었다. 프랑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전인적인 구원이었다. 이것이 사회와 경제, 선교까지 이어졌다.

프랑케의 선교적 업적은 이방 선교사를 위한 선교 훈련 필요성을 느끼고 할레대학교에서 가르쳤다. 그리고 고아원을 세우고, 자선학교를 세우고, 교육사업에 크게 기여한다. 또한 인쇄소, 약국, 신문사등을 설립하여 이윤을 내고 자발적인 기부를 통하여 사역을 유지하였다. 모라비아의 창시자 진센도르프가 프랑케의 영향을 받아 자비량 선교와 비즈니스 선교를 시작한 것은 우연히 아니다. 그의 스승인 프랑케의 영향이다. 진센도르프는 할레대학교에서 프랑케에게 배웠다.

프랑케의 가장 큰 선교적 업적은 할레선교회를 설립하여 1705년 인도 덴마크령인 트란케바로 인도 최초 선교사인 치겐발크(Bartholomäus Ziegenbalg, 1683-1719)와 플뤼차우(Hein-

rich Plütschau, 1677-1746)를 선교사로 파송한 일이다. 덴마크 국왕인 프리드리히 4세는 덴마크 식민지의 원주민들을 위한 선교를 하게 원하였다. 프랑케의 추천으로 최초 개신교 인도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다.

이 두 선교사를 시작으로 60여 명의 할레대학교 출신 선교사들이 인도에서 사역하였다. 프랑케와 할레선교회는 인도 선교와 뿔수 없는 선교의 베필이 되었다. 윌리엄케리는 인도 캘커타에 도착했지만 영국의 반대로 캘커타에서 선교를 못하고 선교에 호의적이었던 덴마크령인 인도 캘커타 외곽인 세람포에서 정착하고 선교하였다. 이것이 프랑케가 미친 실제적인 현대 선교의 기초를 놓은 사실이다. 프랑케는 인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유럽, 유대인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필자는 프랑케는 경건주의의 신조나 신학으로 매여 있지 않고 세상에서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경건을 영혼 구원하는 선교에 관심을 갖고 실천적으로 그 시대에 선교사를 훈련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육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현대 선교 운동의 기초를 놓았다는 점에서 그는 선교 핵심인물이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니어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영타슈
 주일제전
 2023년
 공미라고
 마그네틱 원형물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40년만 사고하면 평생유지하면 언제든 무료입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양자 깔창
양자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오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할,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들게 한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1)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2) 은 : 항균, 향취 효과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 영구적으로 나옵니다.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서머나 교회와 생명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2:8-11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8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9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10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불지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11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 북쪽으로 약 20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에게 해를 향하여 세워진 항구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는 에베소, 밀레도, 그리고 서머나가 3대 항구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지진이 잘 일어나서 그로인해 도시가 잿더미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다른 나라들이 소아시아를 침공하기 위한 발판으로 이곳을 먼저 침공하여 전술, 전략적 요새를 삼았기 때문에 상당히 환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황제가 로마제국의 황제가 되면서부터 많은 돈을 들여 서머나 항구도시를 튼튼한 도시로 재건했는데 그 후 그곳 사람들은 황제를 신성시하는 폐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로 하여금 박해를 당하게 하는 울무가 되고 훗날 순교자가 생기게 되는 문제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도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교회였고 그들은 황제숭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므로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하였으나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은 '몰약 성'입니다.

관목이라는 나무를 여러 조각을 내어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쪼개서 나무의 수액만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수액에서 추출해 낸 것이 몰약입니다. 이것은 방부처리를 하는 용도나 향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몰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모를 겪으시며 죽음을 당하시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몰약 성'이란 이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에서는 예수님을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모든 지상교회에 파송하시고 세우시고 불들어 쓰시는 주님의 사자(아포스톨로스)를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과 그 목자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은 그를 통하여 그 교회를 가꾸시고 이끌어 가시며 그 교회의 사명 따라

다양하게 불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8절에서는 서머나 교회를 두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자신을 이처럼 표현하신 것은 서머나 교회에 순교자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고 하신 말씀은 육신적인 기준에서 그 당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가난했고 환란을 많이 당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은 영적 소망의 믿음이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영적으로 믿음과 은혜가 충만해서 상당히 부요한 교회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러 나라에서 모인 자들이 자신들은 할례 받은 자들로 유대인이라 자칭하며 유대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며 교회를 훼방하고 대적, 핍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유대인도 아니고 사단의 모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는 말씀은 이 고난을 통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환란을 겪고 고문과 죽음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에 환란을 불어심으므로 진짜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 짓는 일을 하시는 것이기에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십 일 동안 환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십 일이라는 숫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이라는 의미이며 또 한 가지는 다소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데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환란을 당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영적 성과를 기대하시는 확실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그 환란이 지나가게 할 수 있는 지혜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하십니다. 죽음으로 온전한 믿음과 충성을 보이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잘 믿었던 믿음으로 인해 죽음을 당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또한 희생양으로 죽임 당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같이 순교하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살리신 것 같이 살리시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의 정절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무한한 능력을 온전히 믿고 묵숨까지 완전히 의탁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오히려 죽음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했는데 이것은 서머나 교회에만 일러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세상 모든 교회에 일러주시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죄악과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어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며,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20:11-15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원 얻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데 그 부활은 심판받고 지옥가기 위한 부활입니다. 이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어린양의 보좌 앞에서 그 행위록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는데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8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했습니다. 즉, 본문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가는 일을 면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교회학교에 치아파닉이라는 12살된 남자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황제숭배 사상으로 인해 황제를 신성시하여 황제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 놓

고 숭배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제단에 절하게 만들었는데 이 아이는 절하지 않고 그냥 서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절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내가 죽을지언정 이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나게 하였고 오늘까지 나를 살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분이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요 그분을 섬겨야 할 입장입니다"며 당당히 말했고 이로 인해 사자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 아이는 "수령님, 제가 사자 굴에 들어가서 이 육신이 찢어진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은 수령님이 이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해치는 일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그 엄청난 형벌을 어찌 감당하려고 이러는 지 그것이 걱정입니다"고 말하며 사자 굴로 들어갔습니다. 이 일이 도화선이 되어 그 교회 지도자인 폴리갑을 잡아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결국엔 A.D 155년에 화형을 당함으로 순교의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A.D 105년경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던 폴리갑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박해 속에서도 두려워 할 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순교적 각오로 구령성과를 위한 사명에 자기 생애를 바친 사람입니다. 어쩌보면 이런 훌륭한 목사님을 두고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받을 일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고 폴리갑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아 당당한 믿음으로 순교했던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죄악세상을 이겨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보장받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I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I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I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국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칼럼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국복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I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나홍진의 <랑종> (1)

태국판 <곡성>인 <랑종>, 모든 종교 평가절하하는 영화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귀신들려 미치는 <곡성> 주인공과 가족에 부도덕한 행적 있었던 <랑종> 영적 현상 소재로 영화에 매력 붙여넣는 나홍진 여러 종교들, 특히 기독교, 신앙 평가절하 허용

◆영혼과 무당: <곡성>과 <랑종>, 한국과 태국의 귀신들림과 무당

<랑종>은 <곡성>의 나홍진 감독이 프로듀싱을, 태국의 반종 피산다나쿤 감독이 감독과 연출을 맡은 영화로, <곡성>과 마찬가지로 빙의, 혹은 귀신들림 현상을 중심으로 서사를 풀어나간다.

반종은 2004년 자신의 감독 데뷔작인 공포영화 <서터>로 태국 최초 1,000만 관객을 달성한 유능한 감독이다. 영화 <랑종>은 나홍진 감독이 기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태국 현지에서 반종 감독이 감독하고 연출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제목인 '랑종'은 태국어로 '접신하는 자', 즉 박수나 무당을 뜻한다. 이 영화는 한국의 무속신앙과 유사한 점이 많은 태국 고유 무속신앙을 주된 소재로 다룬다.

통상 태국은 불교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태국인의 다수를 이루는 민족인 타이족 고유의 무속신앙이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한국에서 불교, 도교, 무속신앙이 오랜 세월 융합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태국에서도 불교와 태국 고유 무속신앙이 융합된 채 전래되고 있다.

<랑종>은 '페이크 다큐멘터리'이다. 창작된 허구적 서사를 마치 사실처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촬영하고 있다. 덕분에 중간중간 태국의 무속신앙이나 미신, 귀신들림 등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자세하게 덧붙여진다.

영화의 초반 주인공은 랑종, 즉 무당인 님(싸와니 우툼마 분)이 맡고 있고, 중반 이후부터는 님의 조카로서 귀신들려 조금씩 미쳐가는 젊은 여성 밍(나릴야 군몽콘켓 분)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대부분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태국 북동부 이산 지역의 한 촌락의 랑종을 맡고 있는 님은 언니인 노이

(씨라니 안키퍼칸 분)의 남편이 죽자 장례식장에 참석한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자신의 조카, 즉 언니 노이의 딸 밍이 귀신들림의 초기증상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밍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이후 밍은 님의 우려대로 귀신들림 증상이 갈수록 악화된다. 이에 가족들과 님의 동료 랑종들까지 나서 밍을 정상으로 되돌리려 노력하지만 밍은 갈수록 광기에 불태워 폭력을 행사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에 계속 고통당하고, 난잡한 성관계에 집착하고, 종래에는 주변인들을 하나하나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보면, 나홍진 감독의 <곡성>이 떠오른다. <랑종>의 서사는 <곡성>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곡성>에서는 한 지방 경찰관의 딸이 귀신들림으로 인해 악의에 몰들어 폭언과 폭력을 일삼게 된다. 이에 딸을 조종하는 귀신을 저지하려 부모와 가족이 성직자와 무당의 도움을 청하고, 지방령에게까지 의지해보지만 결국 계획은 실패한다. 결말은 파괴적이다. 온 가족이 아이에 의해 참살을 당한다.

랑종에서는 대대로 신내림을 받은 집안의 딸이 여러 귀신들에게 붙들린다. 악의에 몰들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종잡을 수 없는 행동들을 일삼는다.

<곡성>에서처럼 가족 전체가 나서 구제해보려 하고, 랑종들이 나서지만 계획은 처참히 실패한다. 역시 결말은 파괴적이다. 일가족 전체와 관련된 랑종들, 그리고 그 제자들과 다큐를 찍는 카메라맨들까지 모두 00을 당한다.

<곡성>과 <랑종>에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다면, <곡성>에서는 경찰관 종구(곽도원 분)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딸 효진(김한희 분)이 귀신들려 미쳐버리고 만다. 반면 <랑종>에서는 귀신이 들린 밍 자신



<곡성>(2016)의 나홍진 감독이 프로듀싱을, <서터>(2004)의 반종 피산다나쿤 감독이 감독과 연출을 맡은 오컬트 페이크 다큐 <랑종>.

과 그녀의 가계에 저주가 내려질 만한 부도덕한 행적들이 있었다.

밍은 친오빠와 근친상간을 했고, 밍의 어머니 노이는 자기 대신 동생 님이 신내림을 받도록 일을 계획한 바 있다. 밍의 조부는 보험금을 노려 자신이 운영하던 방직공장을 불태워 종업원들을 죽임에 이르게 한 극악한 범죄 이력이 있다. 때문에 평론가와 리뷰어 다수가 이 영화를 일종의 권선징악 서사로 바라보기도 한다.

반종 감독의 대표 공포영화 <서터> 역시 성폭행 범죄 희생자의 원혼이 복수를 하는 권선징악형 서사였던 점을 생각해 보면, 영화 <랑종>의 죄와 저주라는 테마는 나홍진 감독보다 반종 감독의 의향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영혼과 종교: 공포스럽지만 영혼, 그 앞에서 무력한 종교

그렇지만 <랑종>을 반종 감독이 아닌 나홍진 감독의 의도대로 해석하려는 이들도 많다. 나홍진 감독의 성향을 고려하면, <랑종>의 해석은 좀 더 복잡해지고 심각해진다.

특히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하다. 나홍진 식 영혼 이해는 기본적으로 신비로움이다. 좋게 말해 신비로움이지, 실상 영화에서 표현되기로는 무자비한 불가지성

이다.

<곡성>에서 그랬듯, <랑종>에서도 모든 종교적 믿음의 효력이 부정당한다. 영적인 실상과 현상은 존재하되, 이를 다스리고 해결하려는 종교의 능력은 보잘 것 없다.

밍의 어머니 노이가 신내림을 받지 않으려고 의지한 가톨릭 신앙은 밍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기존 고등종교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 밍의 가족들은 랑종인 님의 주도로 타이족 무속신앙에 의존하지만, 이 시도 역시 약간의 효과를 보이는 듯하다가, 결국에는 처참한 실패로 끝나고 만다.

이러한 결말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영혼에 관한 것, 영적인 것을 다스리고 이용해 보려는 모든 인위적인 시도는 부질없다는, 나홍진 식 영혼 이해를 반영한 메시지이다.

이러한 부질없는 시도 가운데는 각종 종교적 믿음 역시 포함된다. 그나마 <랑종>에서는 반종 감독의 의향 덕분인지 '타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영적인 억압과 저주를 피하는 방편으로 제시되지만, 이것 역시 신내림과 관련해서는 별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소개된다.

이렇듯 종교적 믿음의 무기력함에 대한 나홍진 감독의 메시지는 종교철학자 루돌프 오토가 널리 알려진 개념, 누미노제(das Numinöse)의 한 측면을 편향적으로 부각시킨다.

오토는 인간이 자연적 현상 혹은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체험을 통해 인간을 절대적으로 압도하는 힘의 존재를 인지하며, 이 신비한 힘에 대해 절대적 경외심을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런 경외심이 바로 누미노제, 즉 누멘적 감정이다. 이 감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매혹이다.

나홍진 식 영혼 이해는 누미노제의 두려움 부분을 집중적으로 내세운다. 도무지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힘이 인간의 곁에 상존하고 있다. 그것이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을 붙들어 뒤흔들지 알 수도 없다.

인간이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신

비로운 힘, 그것에 대해 인간들은 극단적인 공포심을 갖게 된다. 나홍진의 영화 속에서 이러한 공포심은 '귀신에 의한 폭력'으로 구체화된다.

우선 극단적인 두려움을 자아내는 이러한 힘이 만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 이용될 수 있다면, 이 힘은 단지 두렵기만 한 힘이 아니라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매력을 가진 힘이 된다.

종교적 믿음은 누미노제의 매혹적 속성을 부각시킨다. 인간이 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충심으로 섬긴다면 그 무한한 힘이 인간을 보호하고 이롭게 할 것이라는 신념은, 인간을 영혼이나 무한과 관련된 신비롭고 압도적인 힘에 빠져들게 만든다.

하지만 누미노제의 이런 매혹적 성격이 현실화되면, 종교적 믿음이 제대로 힘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데 나홍진 감독의 영화에서는 종교적 믿음이 결코 원하는 대로 발휘되지 않는다. 발휘될 듯 하다가도 무너지고 만다. <곡성>과 <랑종> 모두에서 이런 특성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렇다면 <곡성>과 <랑종>에서 누미노제의 매혹적 성격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만 것인가? 그렇지 않다. 누미노제의 매혹적 성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현된다. 이는 바로 두 작품이 영화라는 점, 즉 그 서사가 허구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쉽게 말해 영화적 현실 속에서는 영적 저주나 귀신들림이 막막한 두려움을 일으키지만, 관객들은 이런 일들이 오로지 스크린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고 있다.

관객들은 감정이입을 통해 다소간의 공포심을 느끼면서도, 영화 밖 현실의 자신은 영화 속의 그 무서운 힘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따라서 영화 속 기괴한 영적 현상이 주는 공포심을 상쇄하는 매력이 이끌어 영화를 감상한다. <계속>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영화 <곡성>에서 어린 여자아이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려 굿을 펼치는 무당 일광(황정민 분).



귀신들에게 붙들려 극단적인 폭력성과 성적 도착증세를 보이고, 결국에는 가족 전체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랑종>의 주인공 밍(나릴야 군몽콘켓 분).



영화 <랑종>에서 조카 밍에게 붙은 악독한 귀신들을 몰아내기 위해 조상신에게 기도하는 랑종 님(싸와니 우툼마 분).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분

정확한 인생 살고 싶다면, 하나님과 이웃에 더 관심을

종이뭉치 주워 버린 신입사원, 면접 합격 디테일,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지만 보잘것없는 것을 잘 챙기는 것이 경쟁력

관심이 삶을 결정한다. 관심은 작은 것을 보게 한다. 인생은 작은 것이 큰 것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예수님은 작은 충성이 큰 충성을 만들고 작은 불의가 큰 불의를 만든다고 하셨다.

어느 기업 신입사원 채용면접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바다에 종이뭉치가 떨어져 있었지만, 지나가는 사람 누구도 줍지 않았다. 오직 한 지원자만이 손수 종이를 주워 휴지통에 버렸다.

그런데 그 종이엔 놀랍게도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우리 회사에 입사한 것을 축하합니다." 몇 년 후, 종이뭉치를 주었던 그 사람은 이 회사의 CEO가 됐다.

이 회사는 사무실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사소한 행위조차, 중요한 자질이자 능력으로 평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디테일의 힘'을 중요시한 회사라 할 수 있다.

디테일이란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다. 보잘것없는 것을 잘 챙기는 것이 경쟁력이다. 디테일의 힘은 관심에서 나온다. 관심이 없으면 디테일을 살릴 수 없다.

디테일은 언어에서도 드러난다. 우리는 바다를 보며 푸르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말 바다가 푸른색일까? 지금 당장 바다 사진을 보자 푸른 바다는 많지 않다. 바다가 푸르다는 표현이 미안할 정도로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결과는 어휘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다.

〈어른의 어휘력〉은 관심에서 어휘력이 나온다고 말한다. 저자는 오랫동안 라디오 방송에서 글을 썼던 작가다. 어른에게 어른다운 어휘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며 책을 썼다.

저자는 1990년 독일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다. 그곳에서 중국인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중국인 친구는 저자에게 "너희 나라 바다는 무슨 색이야?"라는 질문을 한다. 저자는 당연하게 'blue'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중국인 친구는 놀라며 "바다가 '블루'인 나라는 드문 거로 알고 있는데"라고 말했다. 그제야 저자는 바다가 결코 '블루'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자는 관심이 없으면 사물을 온전히 볼 수 없다고 말한다. "나는 대

만민국 삼면의 바다 색깔이 모두 다르고 무엇보다 블루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무 살이나 먹고 대한민국 삼면의 바다가 없는 독일에서 알아차렸다.

5분도 안 되는 사이에 벌어진 이 날의 대화는 내게 중대한 인식의 전환점이었다. 사물과 대상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보지 못하고 있었다. 남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 말과 글의 관성에 갇혀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처럼 타성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저자는 관심이 없으면 관성적으로 보고 듣고 타성적으로 쓰고 말하게 된다고 한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주변에서 들은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관심이 없다면 어휘력을 늘리기 어렵다고 말한다.

저자는 어휘력은 말밭이 센 게 아니라고 말한다. 어휘력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힘이자 대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며, 어휘력을 키운다는 것은 힘과 시각을 기른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한다.

대화 중에는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대화가 있다. 정확하지 않은 말들이 오가는 대화다. 말이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어휘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정확한 어휘를 사용할 줄 안

다면 대화는 간결하고 정확해진다.

노래 제목 생각 안나고 멜로디만 떠오를 때 답답해 어휘력,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단어를 생각해내는 것 어휘력은 생각의 그릇, 커질수록 답을 생각도 늘어

가끔 노래 제목은 생각나지 않고 멜로디만 떠오를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참 답답하다. 다른 사람에게 그 노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잘 부르지도 못하는 노래를 몇 소절 불러야 한다.

그나마 상대방이 알아들었을 때는 대화가 가능하지만 무슨 노래지 모르겠다고 말하면 더 이상 대화가 힘들다. 제목만 알았더라도 한 단어로 끝날 대화였다.

어휘력은 이런 것이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단어를 생각해내는 것이다. 국어대사전에는 어휘를 '마음대로 부리어 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어휘력은 낱말을 양적으로 많이 아는 것뿐 아니라 필요한 상황에서 잘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저자는 어휘력이 부족하면 책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어휘력이 부족하면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고,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면 책장이 넘어가질 않고, 책장이 넘어가질 않으니 짜증난다."

또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 밖에는 상대의 언어를 '당장' 이해하지 못하기도 한다. 어휘

력은 생각의 그릇과 같아서 어휘력이 커질수록 담을 수 있는 생각도 늘어난다. 그래서 어휘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책은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어휘력의 중요성에 관해서 설명한다.

2장은 어휘력을 키우는 필수 조건에 관해 설명한다.

3장은 어휘력을 키우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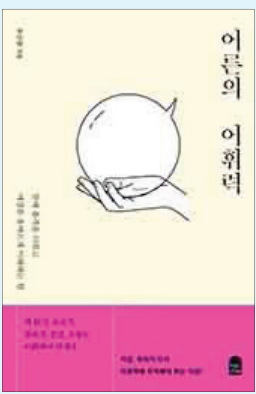
4장은 어휘력을 키우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사람이 제일 가지기 힘든 것이 관심이다. 온통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점점 좁아진다. 하나님은 우리가 좁은 인생이 아니라 넓은 인생을 살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신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관심 표현이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를 살린다. 이제는 우리도 관심을 가질 때다.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필 때 우리 삶은 달라질 것이다.

정확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 것은 건망증이 아니다. 어휘력 부족 때문이다. 모호하지 않고 정확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현수 목사 행복하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어른의 어휘력 유선경 앤의서재 | 344쪽

책 읽기, 글쓰기, 말하기, 공감 및 소통능력도 어휘력이 먼저다

"어휘력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힘이자 대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며 어휘력을 키운다는 것은 이러한 힘과 시각을 기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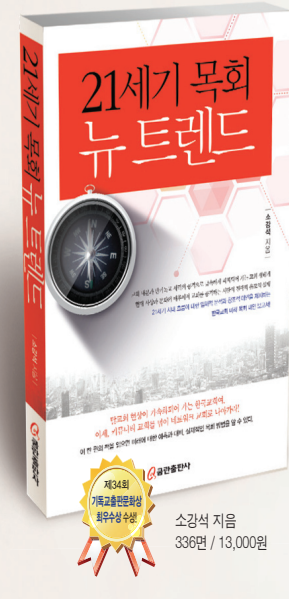
동시에 자신의 말이 상대의 감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야 어른다운 어휘력이다."

Checklist for improving vocabulary: - 말할 때 마땅한 낱말이 자주 생각나지 않는다. - 이것, 저거, 거기 등 지시대명사를 많이 사용한다. - 책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 글쓰기와 토론 능력을 키우고 싶다. -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해 답답하다. - 말귀를 못 알아들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 공감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종종 듣곤 한다. - 타인과 대화할 때 자주 화가 난다. 해당 항목이 있다면 지금바로 당신의 어휘력은 점검이 필요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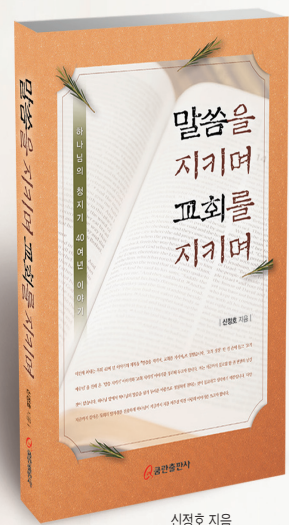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여,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회 예측과 대안, 실재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목사



소강석 저음 339면 / 13,000원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킨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오는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철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척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정호 목사



신정호 저음 380면 / 15,000원

호남신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연한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신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두노회장, 총회 간-농어촌 부흥, 회의록 사기, 총회 정책개발연구원, 세계선교부원, 총회사기, 호남신대학교 총동문회장, 한국 기독교보 논설위원으로 봉사했다. 현재 전북 CBS 운영이사, 호남신대학교 객원교수, 연남대학교 이사, 한국노인교회 회장,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NEW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正 品

100% 정품



Made in U.S.A.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혈당조절! ✓ 면역기능! ✓ 세포분열!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콘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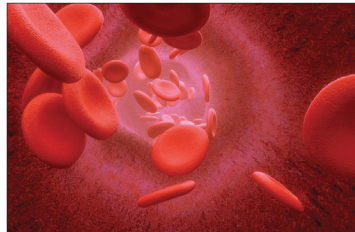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 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삶의 질을 높이길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효과적인 혈당 강하를 원하시는 분



지속적인 혈당 관리를 원하시는 분



식후 혈당이 높으신 분



건강이 염려 되시는 분



생활습관이 불규칙 하신 분

섭취방법

섭취시 1일 2회, 1회 1캡슐을 아침식사 30분 전과 잠자기 1시간 전에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해 주세요.

뉴 프로지골드 출시 기념 SALE



1병 구입시
\$79
+Tax



3병 구입시
\$225
+Tax



6병 구입시
\$432
+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